

최경주, PGA 시니어 데뷔전서 우승할까



‘만50세’로 챔피언스투어 입회... 짐 퓨릭·마이클 위어 등 우승후보와 한 조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데뷔전을 앞둔 ‘탱크’ 최경주(50)가 우승 후보들이 주로 들어가는 주요 그룹에 편성됐다.

최경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블랑에서 개막하는 PGA 챔피언스투어 엘리트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에 출전한다.

챔피언스투어는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무대인데 최경주는 올해 5월 50번째 생일이 지나 입회 자격을 갖췄다.

PGA투어에 이어 PGA 챔피언스에도 최경주는 개척자다.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 카드를 땀던 그는 이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PGA 챔피언스에서 뛰게 됐다. 1980년 창설된 PGA 챔피언스는 미국에서 꽤 인기가 높다.

돈과 시간이 많은 중장년층이 옛 스타들의 샷 경연장인 PGA 챔피언스 대회장을

많이 찾는다. 총상금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보다 많으면서 대부분 컷이 없어 선수들 수입도 적지 않다.

최경주의 PGA 챔피언스 데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정보다 늦어졌다.

그는 지난 5월 시니어 PGA 챔피언십을 PGA 챔피언스 데뷔전으로 삼을 생각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어가 중단되면서 데뷔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엘리트 챔피언십은 지난 3월 중단된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PGA 챔피언스 대회다.

최경주는 29일 발표된 주요 그룹 편성 결과 짐 퓨릭(미국), 마이클 위어(캐나다)와 한 조로 1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최경주와 퓨릭, 위어는 1970년생 동갑으로 모두 이번 대회를 통해 시니어 무대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들이다.

퓨릭은 2003년 US오픈, 위어는 2003년 마스터스 등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다.

최경주는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2011년 정상에 올랐고 PGA 투어 8승을 거둬 아시아 국적의 선수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주요 그룹으로는 최경주-퓨릭-위어 외에 베른하르트 랑거(독일)-비제이 싱(피지)-에니 엘스(남아공) 조가 편성됐고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제리 켈리는 스킷 맥캐런(이상 미국), 레티프 구센(남아공)과 한 조로 묶였다.

PGA 챔피언스투어가 전망한 이번 대회 파워 랭킹에서는 최경주가 6위에 올랐다.

1위는 랑거, 2위 퓨릭, 3위 엘스 순으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지목됐다.

/연합뉴스



김석환 광주스포츠과학센터장이 방문자들에게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배우자”

전국 지역체육회 벤치마킹 잇따라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이하 광주 센터)가 전국 지역체육회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천시체육회 미래기획단과 인천스포츠과학센터 관계자들이 전날 광주 센터를 방문해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 사업에 대한 업무를 공유하고 세부 실천 방안 등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엘리트 선수들의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스포츠과학 시스템과 의학적인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현장에서 요구한 컨디셔닝지침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선수지원을 위해 현장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 규모 대회에서 스포츠과학과 컨디셔닝의 융·복합 방식을 지원해 선수들의 기량과 기량 향상을 뒷받침했다.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 지원사업은 전국 지역 스포츠과학센터 11개 가운데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 트레이너와 건강운동관리사를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인천선수촌 및 지자체에서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김창준 체육회장은 “시·도체육회의 상상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최초 사업인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가 조속히 정착돼 광주 체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슛은 막았다... 더위는?

28일(현지 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NHL) 경기에서 몬트리올 캐나디언스의 캐리 프라이스(골텐더·왼쪽)가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의 오스틴 매튜스(센터·맨 오른쪽)의 슛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 클래식 등 KLPGA 투어 3개 대회 취소

다음 달과 9월 예정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 3개가 취소됐다.

KLPGA는 “8월 20~23일 예정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0’, 8월 27~30일 열려던 ‘한화 클래식 2020’, 9월 10~13일 예정이던 ‘울포유-레노마 챔피언십 2020’이 취소됐다”고 29일 밝혔다.

KLPGA는 “타이틀 스폰서인 하이원리조트, 한화솔루션, 한성에프아이와 함께 대회 개최에 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스폰서의 사정에 따라 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이 세 개 대회는 2021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화클래식은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이에 따라 KLPGA 투어는 30일 개막하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이후 8월에는 대우유니아 MBN 여자오픈(8월 14~16일)만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관리 단체로 지정

대한체육회가 대한철인3종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했다.

대한철인3종협회 기존 임원은 모두 해임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협회를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제36차 이사회를 열고, 긴급 안건으로 대한철인3종협회 관리 단체 지정에 관해 심의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이기흥 회장은 “철인3

종협회를 체육회 관리 단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안으로 인해 (폭행 사건 등의)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 하자는 의미다”라며 “선수에게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관리 단체로 지정해 철인3종협회 내부의 문제점을 소상히 살피고,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사회를 앞두고 대한철인3종협회의 ‘준가맹단체로의 강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화순군청 배드민턴, 올 첫 전국대회 3위

봄철리그전

화순군청 배드민턴팀이 올 시즌 첫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2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화순군청 배드민턴팀은 전남 경남 밀양 공설운동장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제58회 전국봄철배드민턴리그전 여자일반부 4강전에서 KGC인삼공사에 아쉽게 2-3으로 패해 3위에 그쳤다.

첫 세트에서 화순군청 전주는 인삼공사 이세연에게 0-2로 패했다. 2세트에 최유리가 김예지에게 2-3으로 패했지만, 복식조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복식으로 맞붙은 3세트에서 고아라·유채란 조가 박혜은·박세은을 2-0으로, 방지선·정나은이 고혜련·목혜민 조를 2-1

로 누르며 연속으로 세트를 따내 극적으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마지막 5세트에서 강민희가 김가람에게 1-2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9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A조에 속한 화순군청은 조별예선에서 주축 선수들이 국가대표인 인천국제공항에 패했지만, 시흥시청과 포천시청을 잇따라 꺾고 조2위로 4강에 진출했다.

전라남도체육회 김재무 회장은 “화순군청 정명희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훈련여건에도 의미있는 성적을 올렸다”며 “전남 배드민턴의 자긍심을 높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강철비2: 정상회담
2관	강철비2: 정상회담, #살아있다, 고 피쉬!
3관	반도
4관	강철비2: 정상회담
5관	반도
6관	강철비2: 정상회담
9관	강철비2: 정상회담
7관 씨네커를	강철비2: 정상회담, 세인트 주디, 슈퍼 레이스, 소리꾼, 모든 것을 벗어던진 특별한 여행
8관 씨네커를	알라딘, 빅사크 3: 엘리먼트 대소동, 존 워: 특별판, #살아있다, 1942: 연노운 배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람 신작: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No.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Prayer, 달의 춤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